

'출판타운' 마스터플랜 윤곽 밝혀져

출판단지건설추진위, 계획안에 대한 보고회 열어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준비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웅)가 추진하고 있는 출판타운 건설계획안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출판문화회관에서 '출판타운 건설의 필요성과 건설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200여명의 출판·인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고, 그간의 추진경위와 구체적인 건설계획안의 대강을 밝혔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원 380개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조합원 94개사, 대한제본공업협동조합 조합원 29개사, 기타 연관업체 80개사 등 모두 583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20일 발족한 동위원회는 오는 9월 1일 새로이 발기인대회를 열어 '출판문화산업단지건설조합'을 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총소요면적 15만평...복합문화단지

먼저 출판타운 건설의 기본방향은 "수도권 외곽에 건설 예정인 신도시의 일지구역을 특화, 출판·인쇄·제책 등의 산업기능과 도서관·기숙사 등의 복지기능을 고루 갖춘 콤비나트 형성"으로 잡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인데, 우선 토지공급은 신시가지 개발계획과 관련한 사업계획에 의거,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하면 조합에서 일괄 분양받는 방식을 기대하고 있다.

단지규모는 당초 50만평으로 구상했던 것을 축소하여 총대지면적 15만5천4백평 규모로 잡고 있다. 출판업을 중추생산기능으로 하고, 유통관리기능과 교육시설·박물관·공연장·기숙사·의료시설 등을 고루 갖춘 공간으로 활용한다.

출판타운의 건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또 職住近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독신종업원 숙소 3천세대를 산업단지 내에 조합이 자체적으로 건설하고, 사원임대아파트(2천세대)도 마련, 우선순위로 임대할 계획이다. 한편, 사원분양아파트(2천세대) 중 일부는 분양조합을 결성, 공공주택 공급분 중에서 분양받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건설·공급할 방침이다.

이러한 도시설계에 의거하여, 분양받은 토지는 조합이 참여업체에게 필지별로 공급하고, 조합과 유관기관 감독하에 참여업체별로 건설·이전토록 하며, 복지시설 등의 공공시설은 조합에서 직접 건설한다.



8월 18일, 출판산업 관련업체의 비성한 관심 속에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하는 설명회가 열렸다.

토지매입과 공동시설건설에 따르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出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충당하되, 추가적으로 한국출판금고·한국출판협동조합·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문예진흥기금·근로자아파트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동위원회는 새로 생길 신도시 중 분당보다는 地價가 싼 일산에 출판타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① 조합이 필요로 하는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줄 것 ②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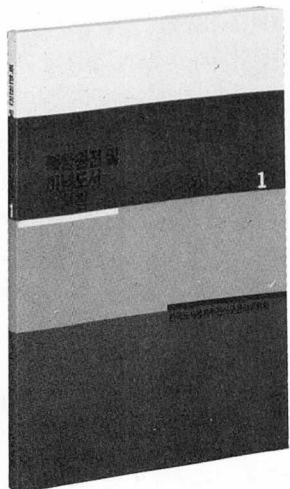
및 세제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해줄 것 ③ 종사자를 위한 주택공급책을 마련해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출판타운의 건설은 수도권 인구 및 산업재배치의 효과는 물론 도시환경 정비의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건설계획의 수립·시행과정에 걸친 정부관련기관과의 협의, 신도시건설사업과의 조화, 관련산업체의 적극적 참여,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이 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창용 기자

화제의 책

올바른 '북한이해' 위한 시각조정

한국간행물윤리위, 「북한원전 및 이념도서 서평집」 펴내



작년 여름 이후 쏟아져나온 각종 북한원전과 이념서적에 대한 서평집이 국내 처음으로

발간,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8월17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명칭 변경)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북한원전·이념도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서평을 담은 「북한원전 및 이념도서 서평집」 전4권을 올해 안에 펴내기로 하고 우선 그 첫권을 선보였다.

북한원전이나 이념도서 등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일방적으로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 독자나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간행된 이 책 제1집에는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등 북한원전 10종과 「한국전쟁과 한미관계」 등 이념도서 9종에 대한 서평이 각각 20매 분량으로 실려 있다.

9월10일쯤 발간될 제2집에는 북한원전 14

종과 좌경이념도서 6종에 대한 서평을 실을 예정인데, 대상이 된 책과 집필자는 다음과 같다.

- ▲혁명적 세계관과 청년(진교훈·서울대)
-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정용석·단국대)
- ▲변혁과 통일(허동찬·동경도립대)
- ▲다국적 기업과 현대제국주의(임중철·서울대)
- ▲사회주의경제 건설이론(서석태·연세대)
- ▲현대조선역사(이연복·서울교대)
- ▲조선통사·下(이기동·동국대)
- ▲인간개조이론(강영계·건국대)
- ▲조선철학사연구(성태용·건국대)
- ▲주체의 학습론(나학진·서울대)
- ▲민중의 바다(윤병로·성균관대)
- ▲한자위단원의 운명(김우중·덕성여대)
- ▲항일혁명문학예술(김지용·아주대)
- ▲미제침략사(신복룡·건국대)
- ▲실천적 대중운동론(이택휘·서울교대)
-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전술(김갑철·건국대)
- ▲반제반파쇼운동론(신광휴·외국어대)
- ▲레닌과 사회주의혁명(황성모·정신문화연구원)
- ▲지리산(김형덕·시인)
- ▲조선근대혁명운동사(김창수·동국대)

이들 서평들은 북한원전·이념서적이 안고 있는 논리적 모순, 현실과의 괴리 등을 지적하는 비판적 분석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동위원회는 2집까지는 각각 3천부씩 간행, 각 대학·연구소·도서관·출판사 등에 무료로 배포하는데, 3집부터는 일반 서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有價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평만을 일방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서평 앞에 그 책의 줄거리를 소개, 독자들이 좀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의 총책임을 맡은 崔麟圭 전문위원은 "2집을 낸 다음에 각계의 반응을 종합,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작업은 북한원전이나 이념서적에 대해 압수·수색·판금으로 일관해온 그간의 대처방식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그러나 "역량있고 중립적인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가 그 성공의 관건이라고 관심있는 이들은 지적한다.

—차창용 기자